

제17회 전주프로젝트 공모 시작

12월 20일까지 차별화된 한국 장편영화 프로젝트 발굴 지원 전주랩·워크인프로그램

제17회 전주프로젝트 공모가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기획개발 단계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멘토링과 기획개발비를 지원하는 '전주랩'과, 후반작업 단계의 장편영화 프로젝트를 선정해 국내외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시사와 작품 컨설팅을 제공하는 '워크인프로그램'이다. 접수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 1일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에 따르면 '전주랩'은 장르와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한국 장편영화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기획개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기획개발 단계의 8편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국내 영화산업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 및 기획개발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주프로젝트 기간 중

국내의 영화산업 관계자와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2차 기획개발비와 현물을 차등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 연에 매니지먼트사로 구성된 캐스팅 위원회의 심사로 선정된 프로젝트에 캐스팅 지원 옵션 제공과 기획개발 지원금 지원, 지미집, 드론, 수중촬영 등 현장 현물 협찬 또는 지원이 신설됐다.

이는 전북 영상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단편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북지역에 주소를 뒀거나 전북지역에 있는 대학(원) 대학생 및 휴학생의 프로젝트 2편을 선정해 영화산업 전문가의 집중 멘토링과 제작지원금 500만 원 및 현물 지원을 한다. 제작 완료된 '전주랩: 단편' 선정작 2편은 내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관객을 만

나게 된다.

이어 '워크인프로그램'은 제작 완성 단계에 있는 국내 장편 독립예술영화의 작품 완성도 향상과 국내 및 해외 배급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5편 내외의 작품은 국내외 영화제의 프로그램, 영화산업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 어드바이저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극장 시사를 갖고, 작품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전주프로젝트 기간 중 영화산업 전문가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1편은 배급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제17회 전주프로젝트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국제영화제 공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 최고 읍지 '운수지' 간행

국역 운수지 읍묘본

전북특별자치도 최고(最古)의 읍지 '운수지(雲水志)'(1675)가 번역·간행됐다.

'국역 운수지 읍묘본'은 오수에 살고 있는 김진영 씨가 소장하고 있는 운수지를 저본으로 하여 학술교육원(대표 노방용)에서 출판되었고, 번역과 함께 원문 이미지를 함께 실었다. 저본이 된 운수지 읍묘본(1675)은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한 2024년 맞춤형 복원·복제 처리 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보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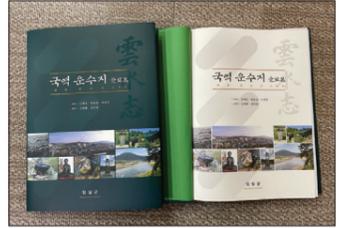
읍지는 당대의 지역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나, 사찬읍지의 콘텐츠의 양은 전국 지리지나 도별읍지 등 관찬읍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운수지는 조선시대 임실현의 사찬읍지로 1675년과 1730년에 편찬되었고, 1904년에 간행된 적이 있었다. 그 시초가 된 것이 이번에 발간한 운수지 읍묘본이다.

그간 학계 보고에 따르면, 16~17세기 전라도 사찬읍지는 승평지(1618, 순천), 탐라지(1655, 제주), 용성지(1699, 남원) 등 3종이었다.

임실현 읍지 운수지(1675)가 출현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최고의 사찬읍지가 된 것이다.

당시 신계정 임실현감은 고을사람 한필상, 이시연과 함께 32개 항목, 96면에 걸쳐서 임실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했다. 임실현의 별칭인 운수(雲水)의 연원과 변천, 17세기 면리제(面里制)의 시행, 역대 임실현감 포괄, 각종 인물력에 포함된 행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후 열악했던 임실현 사정,



지역 관련 인물들의 에피소드, 산천에 딸린 수많은 이야기, 국한문 혼용 가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17세기 임실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임실의 별칭인 운수(雲水)의 연원이 되는 운수정(雲水井)을 용요산 운수봉 아래 절골약수터에서 발견하게 됨에 따라 자료의 정확성이 날다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관 사포가 부임할 때 처음으로 이 물을 마시게 하면 비록 흑리(黠吏)라고 가히 양재(良宰)가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우물이다.

심 민 군수는 '병자호란이 끝난 지 39년 만에 신계정 현감이 한 고을의 전후 복구는 물론 여러 가지 정무에 전념하면서 고을의 유적과 명성이 있는 선비들의 발자취를 남긴 것이 운수지'라며 "360년 만에 학예사와 지역 주민이 함께 국역서를 간행한 것이 참으로 인연이고, 임실의 역사와 문화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역 운수지는 발간과 함께 학술교육원 사이트, 임실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성 기자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서명운동 돌입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12월 말까지 전 국민 대상 진행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송하진)는 2025년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에 지정되도록 힘을 모으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과 각종 전시행사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서

명운동을 전개, 서명한 명부는 국가유산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이번 서명운동에 국민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 마한박물관, 오감 만족 토기 체험

익산시 마한박물관이 토기를 빚고·굽고, 토기에 요리까지 하는 오감 만족 체험을 운영한다.

마한박물관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백제 도예원에서 '옛날 사람들은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주제로 자신만의 개성과 맛을 담은 토기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야외에 설치된 가마에 불을 피워 토기가 구워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부뚜막에 불을 지피 토기에 조밥을 지어본다.

모집 대상은 3학년 이상 초등학생과 보호자 등 4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마한박물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장수군, '제1회 청년미술작가 초대전' 개최

장수군 청년 미술 단체 아미모(대표 김훈)는 군에서 지원하는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장수 한누리리전당 가림관 1층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관람시간은 매일 9시부터 20시까지이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미모 회원 작가 5명과 초대 작가 10명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며 작고 섬세한 일러스트 작품에서 대형 사이즈의 회화작품 등 구상, 추상, 패턴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를 기획하고 주최, 주관하는 아미모의 회원들은 장수군에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청년들이지만 자신만의 작품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채 약 1년간 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김훈 대표는 "장수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미술 전시회를 열어 장수의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전시회를 개최해 청년 작가들의 다채로운 예술세계를 우리의 고장 장수에서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과 예술이 만나는 장을 만들어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움직임이다"며 "향후에도 각종 문화 행사, 특히 청년 문화행사를 다각화해 생활인구 유입에 힘을 예견되거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가을을 담다' 조리 체험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가을을 맞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맛깔스런 음식을 만들어보는 '가을을 담다' 조리 체험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전당에 따르면 전주시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이번 조리 체험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 형성을 위해 가을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한 끼 식사를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1일 집밥요리 '토란대 닭가슴살' △5일 약선요리 '육정반채버섯 묵무침' △7일 지역한끼 '닭갈비' △8일 건강밥상 '삼치스테이크' 등 모두 4회의 조리 체험이 이뤄진다.

특히, 7일 진행되는 체험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 제철 식재료에 대해 알아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요리법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체험은 평일 저녁시간대인 오후 7시부터



터 진행되며, 제철 식문화 체험하고 싶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관련 입장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가 벌어졌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위법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종교탄압 웬 말인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금 이 나라를 어디로 가려는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멀어 국민을 돌로 나누고, 종교를 돌로 가르치고, 결국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

우리 신천지예수교회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관해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자 했다. 국내의 수만 명의 수료생과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입국해 행사 참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국제 행사였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당일인 10월 29일 오전, 우리와는 단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적법한 대우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처사다. 이미 입국한 각국의 종교지도자들과 수료생들에게 우리는 무슨 설명을 해야하는가? 한류를 외치며 세계화를 강조하던 대한민국이 종교탄압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에게 데모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 7월 22일 대관 승인통보 후 10월 2일에는 대관비도 완납했다. 10월 16일에는 행사 규모, 배치도, 안전계획, 특수효과 불꽃 사용 등에 대한 실무 미팅을 진행하고, 경기관광공사는 행사의 모든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안전점검 심의도 완료했다. 특히 같은 날 경기도가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대북 전단살포 차단을 위한 조치로 우리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전 통보나 제제도 없었다. 더구나 10월 23일과 28일, 담당자들은 두 차례나 "대관 취소 계획이 없다"고 공식 확인까지 했다.

안정성 검토까지 완료된 행사를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로 당일 취소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며, 국민을 돌로 나눠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다. 더욱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한 자국'이라는 허울뿐인 변명을 내세워 대관취소를 지시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행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 행태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신천지예수교회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는 것인가? 특정 종교단체의 말 한마디에 허가했다가 취소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던 말인가? 우리는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

이대로는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신천지예수교회 수십만 성도가 거리로 나서기를 원하는가? 신천지예수교회는 그동안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갈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무시하고 차별해도 되는 2등 국민이 아니며, 이 땅에 2등 국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차별과 탄압이 이 나라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는가? 착각하지말라.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대관 취소 결정 근거를 낱말이 밝히고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와 초청받은 국내외 귀빈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종교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수십만 명의 성도들과 거리로 나갈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에 한국의 종교탄압 실태를 낱말이 고발하고, 가능한 민·형사적인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종교의 자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신천지예수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1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